

김남규의 직장종합영어 (70) 이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(시사저널 2020년 2월21일)

예의와 격식을 차려서 질문을 하려고 할 때나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을 꺼낼 때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도, 대부분 뒤에 **but**이 들어갑니다. 예문들을 알아보까요

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서는 안되지만 **I know I am not supposed to ask you this question, but**

이런 질문 드리기는 싫지만 **I hate to ask you this, but,**

이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(직역: 이런 질문할 수 있도록 허락바랍니다)
Allow me to ask you this question

혹시 가능할까 궁금합니다 **I am wondering if** (예) **I am wondering If can take a monthly leave tomorrow** 혹시 내일 제가 월차 휴가를 낼 수 있을까 해서요

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, **I don't want to say this, but**

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지만 **I should not tell you this, but**

이런 말씀을 드리기에 적절한 시간은 아니지만 **I know this is not the right time to say this, but** (주) 보통 뒤에 나오는 표현 **I must tell you something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)**

직장영어 #예의를 갖춘 영어